

038390.KQ,
038390 KQ
시가총액
906억원

레드캡투어[주가 13,350원/Not Rated]

[탐방보고] 여행 관련 토탈 서비스를 추구하는 성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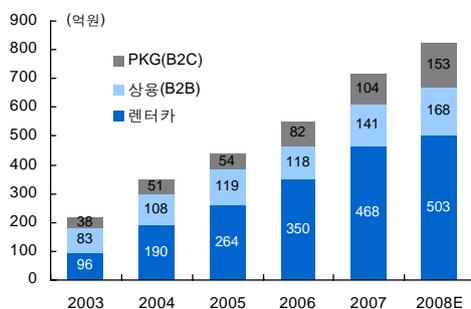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LG그룹 계열의 렌터카와 여행 사업 중심의 성장기업
- 렌터카와 상용 부문 양호한 영업이익 지속 전망
- 렌터카 부문은 일반법인 확대와 신규수익모델 개발로 성장 도모
- 여행사업은 채널 확대와 신규고객확보로 이익 성장 도모
- 2008년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예상

LG그룹 계열의 렌터카와 여행 사업 중심의 성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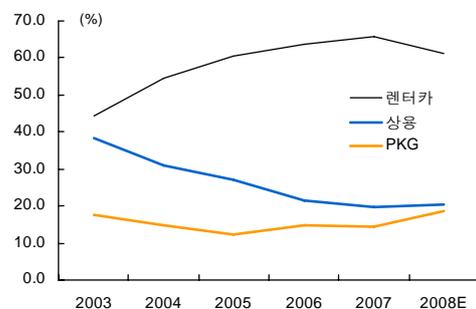
레드캡투어는 법인대상 렌터카 사업과 상용 패키지 등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성장 기업이다. 전신인 범한여행이 미디어솔루션에 합병되면서 우회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미디어솔루션이 영위하던 키오스크 사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분리되었다. 따라서 현재 동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렌터카 사업과 여행사업으로 구분된다. 렌터카 사업은 법인 대상 장단기 차량대여가 대부분이나 향후 B2C 사업 및 단기렌탈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여행사업부는 LG/GS/LS 그룹 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상용서비스와 여행 패키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상용서비스는 항공예약 및 발권, 호텔예약 등 해외출장수속을 전담하는 BTMS(Business Travel Management System)을 중심으로 신규 법인고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행 패키지 사업은 적자구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오케이투어를 인수한 이후 채널 마케팅 강화, 맞춤형 여행 강화 등으로 2009년부터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그림 2. 매출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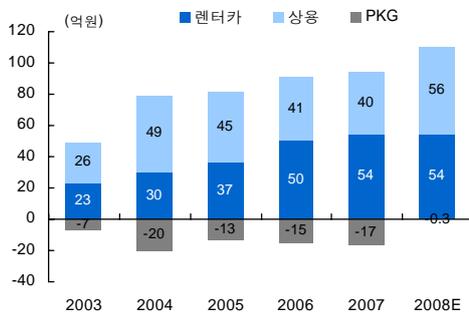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렌터카와 상용 부문 양호한 영업이익의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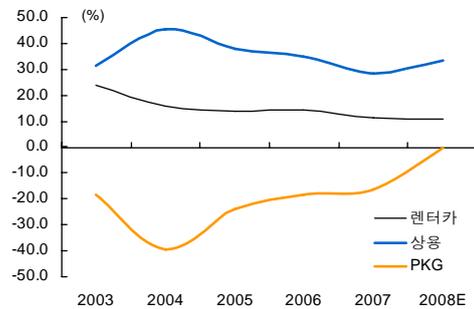
동사의 매출 비중은 렌터카사업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렌터카와 상용부문이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상용서비스의 영업이익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렌터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속에 수익성이 좋은 상용부문의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패키지 사업에 공격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고정비 부담 감소로 패키지 사업의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상용부문은 전략적 제휴와 기타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그림 4. 부문별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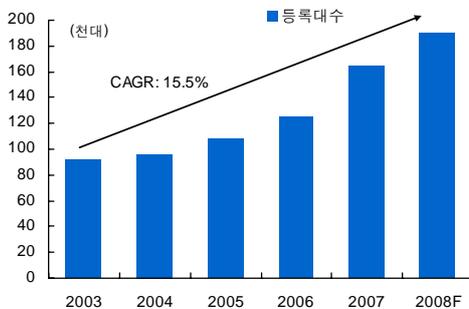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렌터카 부문은 일반법인 확대와 신규수익모델 개발로 성장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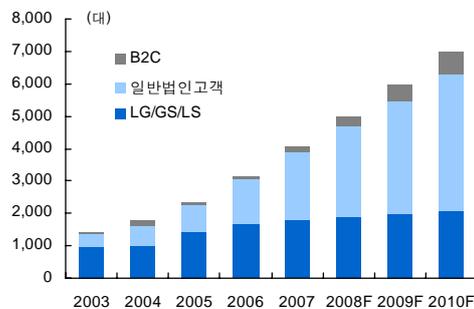
동사의 렌터카 사업은 LG그룹 물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일반법인으로 영업 확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룹 비중이 45%까지 하락하였다. 향후에도 그룹 물량의 안정적인 유지와 일반법인고객의 고성장으로 렌터카 사업의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렌탈에 치중되어 있는 수익원도 단기렌탈, 리스사업 등 다양한 수익원 개발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렌탈법인 거래처 및 임직원 전용 상품 위주로 초기투자비를 최소화 하면서 B2C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림 5. 렌터카 시장추이 및 전망



자료: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레드캡투어

그림 6. 고객별 차량대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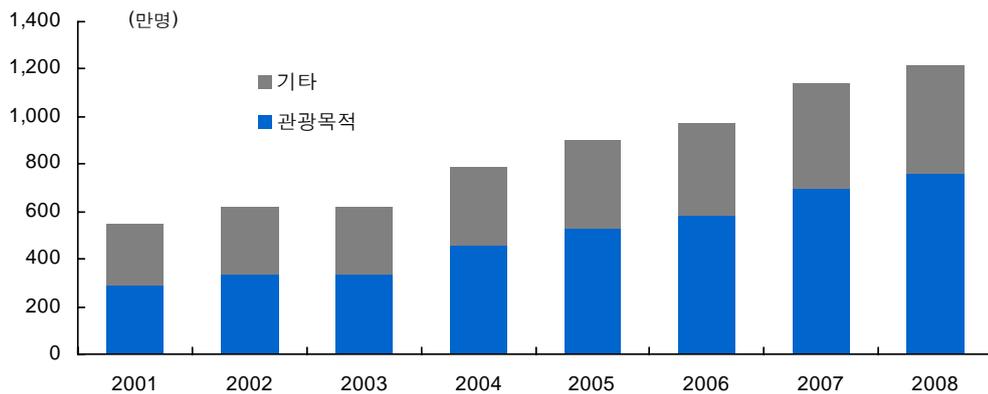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회사추정치)

여행사업은 채널 확대와 신규고객 확보로 이익 성장 도모

국내 여행산업은 2000년 이후 평균 10.6%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B2B인 상용부문은 세종나모여행, B2C인 패키지부문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 주요경쟁사이다. 동사가 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며 2007년 인수한 오케이투어 1.5%를 합하면 업계 4위 수준이다.

동사는 LG/GS/LS 그룹물량을 기반으로 상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향후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상용과의 시너지를 통한 패키지부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대리점 150개를 구축하고, 법인고객 임직원 전용 여행상품물 구축을 통한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제휴채널 확대 및 전용상품 판매 강화, 홈쇼핑 매출 확대 등 채널마케팅 강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용서비스 부문은 그룹 비중이 높아 성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AMEX와의 제휴를 통해 다국적기업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며, LG/GS/LS 그룹 및 일반법인고객 등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BTMS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7. 출국자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레드캡투어

그림 8. 여행산업 시장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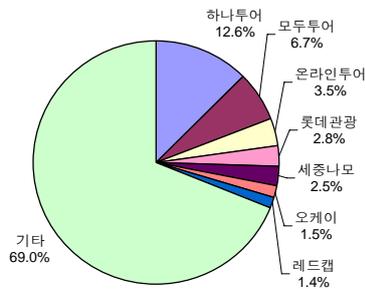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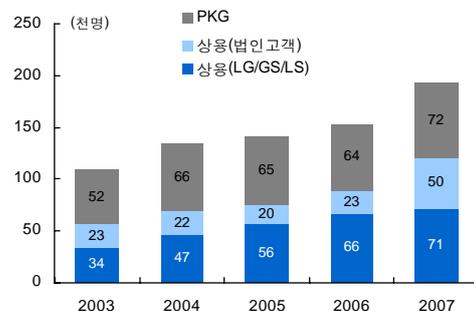


그림 9. 송출인원 추이



자료: 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2007년기준) 자료: 레드캡투어

2008년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예상

레드캡투어의 2008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렌터카사업은 그룹과 법인고객의 차량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B2C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되며, 2)상용부문은 그룹수요의 안정적 성장 외에 AMEX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반법인고객의 확대 추세가 예상되고, 3)패키지 사업은 상용부문과의 시너지,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통한 아시아지역 영업력 강화, 추가적인 M&A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렌터카와 상용부문이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두자리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패키지 부문은 사업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적자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 시점 현재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현재 상기 본인의 추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6개월간 상기 추천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병수)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구분

- 프르덴셜투자증권의 종목추천에 대한 투자기간은 6개월, 투자등급은 4단계로 구분함
- 기업분석 - Strong BUY(강력매수) : 시장지수대비 30% 이상 초과수익률 기대 - BUY(매수) : 시장지수대비 10%~30%의 초과수익률 기대 - Market performer(중립) : 시장지수대비 -10%~+10% 수익률 기대- Market Underperform(시장하회) : 시장지수대비 10% 이하 수익률 기대
- 산업분석 - Overweight(비중확대):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시장의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고 - Neutral(중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시장의 비중보다 같게 가져갈 것을 권고 - Underweight(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시장의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고

증가 및 목표주가 / 최근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 Record



* 추천일이 표시된 자료는 해당일 프르덴셜투자증권 홈페이지(www.pru.co.kr)에 기 발표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분석당시 신뢰성 및 객관성에 의거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 작성된 분석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사의 공식적 의견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당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인용할 수 없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누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rudential Financial is a service mark of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Newark, NJ, USA and its affiliates.
© Prudential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All rights reserved.